어르신 · 부모 · MZ세대, 템플스테이로 '오감만족'

문화사업단, 20주년 특별 템플스테이 잇달아 개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사업단 · 서울노인복지센터 봉선사에서 어르신 템플스테이
부모 · MZ세대 템플스테이 체험
실천 통한 인지도 상승 기대돼


5월 25~26일 봉선사에서 열린 어르신을 위한 템플스테이에서 어르신들이 연꽃등 만들기를 체험하고 있다. 20주년 특별 템플스테이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회원 어르신 20명이 참석했다.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기획된 특별 템플스테이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어르신부터 부모, MZ세대 등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소통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희유)와 함께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남양주 봉선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를 개최했다.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특별 템플스테이 일환으로 열린 이날 템플스테이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 20명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특별 게스트로 20주년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인 배우 정찬 씨도 함께했다.

5월 25일 열린 템플스테이 입재식에서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덕운 스님은 "2002년 한일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안으로는 국민들의 여가 선용과 심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밖으로는 한국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 20년 동안 세계 25개 국가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고 누적 연인원 6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템플스테이는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라며 "문화사업단과 봉선사가 열심히 준비했다.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모두 만족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을 대표해 단상에 오른 이희경(89) 씨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해준 문화사업단과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희경 씨는 "템플스테이는 사찰에서의 하루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바쁜 일상 속 쉼의 기회가 되는 선물 같은 시간"이라며 "이번 템플스테이는 우리 서울노인복지센터 회원들과 함께하게 돼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날 템플스테이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 배우 정찬 씨는 템플스테이 20주년을 축하하며 참가 어르신의 행복을 기원했다. 정찬 씨는 "20주년을 기념하는 템플스테이에 참석해 영광이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봉선사에서 1박 2일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입재식을 마친 참가 어르신들은 봉선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의 안내로 사찰을 순례했으며, 순례 뒤에는 연등 만들기 체험을 했다. 어르신들은 연잎 종이에 풀을 붙이며 연등을 완성해갔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며 즐거워하는 어르신도 있었다.

이날 참가한 유정혜(72) 씨는 "용문사에서 가족들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한 적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한 것은 처음이라서 너무 즐겁다"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영삼(80) 씨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동료 봉사자가 추천해줘서 참여하게 됐다"면서 "봉선사에 와보니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아 마음이 안정된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자주 참석하고 싶다"고 밝혔다.

50 · 60대 부모와 MZ세대 자녀들은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순천 송광사에서 '라떼 템플스테이' 를 진행했다. 특히 한 가족은 80대 할머니와 같이 3대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라떼 템플스테이' 는 20주년 특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하나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1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번 송광사 템플스테이에서는 1박 2일간 연꽃등 만들기 체험, 명상, 불일암 및 암자 순례 등을 통해 학창시절 부모세대가 경험한 불교문화를 자녀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중 심채연 학생은 "이번 템플스테이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첫 템플스테이여서 저에게 의미가 깊었다"며 "쉴 새 없이 달려오신 부모님과 함께 잠깐 멈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문화사업단과 송광사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부모와 자식 사이만큼 가깝고도 먼 사이는 없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사업단이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사업단은 6월 한 달 동안 '행복두배 템플스테이' 를 진행한다. '행복두배 템플스테이' 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2 여행가는 달' 행사와 연계해 이뤄지는 템플스테이 할인 이벤트다.

해당 이벤트 참가자는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3만 원에 체험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당일형 템플스테이를 1만 원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푸짐한 기념품도 제공된다.

1박2일 템플스테이의 경우 내 · 외국인 6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당일형 템플스테이는 외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예약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프랑스, 한국불교문화에 빠지다

파리 길상사 · 한국문화원
5월 21일~6월 25일 진행
혜원 스님 "큰 호응 주목"


파리 길상사가 5월 21일 진행한 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이 명상체험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한국관광 · 음식문화대전 '테이스트 코리아 2020' 축제가 열린 가운데, 파리 길상사(주지 혜원)와 한국문화원이 진행한 템플스테이를 향한 현지인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파리 길상사가 5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6회에 걸쳐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을 주제로 진행 중인 사찰 체험 행사에 현지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 주목된다.

주지 혜원 스님에 따르면 애초 한국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공고가 게재된 후 조기마감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350명 이상이 대기자 리스트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신청자는 파리 뿐만 아니라, 지방도시, 심지어 벨기에에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21일 처음 진행한 템플스테이는 길상사 정원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된 산사 7곳의 사진을 둘러보며 한국 사찰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기회로 시작됐다. 프로그램은 주지 혜원 스님이 직접 진행을 맡은 가운데 발우공양과 마흔느강 걷기 행선, 좌선과 요가, 다도, 울력 등 참가자들이 사찰의 청규 정신을 배우고 생활을 수행으로 삼는 체험으로 구성됐다. 체험용 발우와 체험복은 주불한국문화원과 불교문화사업단이 각각 후원했다.

혜원 스님은 "전통방식으로 진행된 발우공양을 낯설고 복잡하게 느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참가자 모두가 게송 한 구절 한 구절을 후창으로 따라하며 의식의 전단계에 잘 참여했다"며 "혼자서 참가자들 전원의 공양을 준비하느라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았지만, 발우공양에 담긴 정신과 덕목이 오늘날 프랑스 사회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는 데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도와 명상 프로그램은 소림헌에서 진행됐다. 소림헌은 파리 길상사를 창건한 혜원 스님의 은사 법정 스님이 프랑스에 방문 시 거처하던 곳으로, 지난 2019년 개축불사를 완료하고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돼 의미를 더했다.

혜원 스님은 "처음 문화원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당시, 현실적으로 여건이 너무나 열악해 망설였지만, 이런 여건 속에서도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첫 템플스테이를 원만하게 회향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한국불교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문화와 수행을 겸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겠다는 원을 세우게 됐다"고 전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항일유적 법정사터, 現법정사 위치 아냐"

한상봉 향토사학가, 5월 21일
봉려관문화원 세미나서 주장

봉려관 스님이 창건해 항일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했던 제주 법정사항일유적지의 실제 위치가, 현재 법정사가 아니라 '법정이내' 로 지칭되는 하천의 동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 중인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상봉 제주향토사학가는 5월 21일 (사)봉려관문화연구원이 개최한 '근대 제주불교역사 그리고 그 진실을 찾다' 학술세미나에서 '법정사 항일유적지 고찰' 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사학가는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보고서에 항일유적지 법정사터가 지금의 법정사로 지목되고 있지만, 당시 지형도와 주민 증언, 사료와 직접 답사 등을 총괄해 분석한 결과 현재 법정사 위치가 아니라 하천 법정이내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역민들의 증언과 유구의 존재 △1948년 항공사진에서 법정사 잔존유구에 실재한 건물 확인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화전민들의 터전이 법정사 잔존유구와 인접해 있다는 증언 등을 제시했다.

기존연구에 의해 법정사항일유적지터가 현재 법정사 위치로 인식된 데 대해서도 '무리수를 둔 판단' 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학가는 "기존연구에서는 1918년 지형도에서 하천의 변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증언과도 상충된다"며 "기존연구의 오류는 지형도에 대한 무비판적인 해석과 증언 누락, 현장답사를 통해 화전민들의 이동경로 등을 추적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성수 동국대 문학박사(불교신문 부장)가 '격동기 근대제주사회에 여명 밝힌 봉려관 연구' 를,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이 '제주항일운동연구의 성찰과 과제' 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지희 기자

